

서상을 찾나게 하는 당한열수필 노원성진교회



2025 추석 가정예배(추도예배)

- 1 . 가족 중 한 분이 인도자가 되어 주세요. 설교자는 영적 가장이 맡습니다.
- 1) 향이나 촛불은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 2)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 3) 가족들이 성경봉독이나 대표기도순서를 나누어 맡아 진행합니다.
- 4) 예배를 모두 마친 후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뒷면)

대표기도 -가족 중

풍성한 추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가족되게 하시고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가족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100편1-5절

1 . 온 땅이여 여호오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지 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충할지어다 5 .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설교 - 하늘나라 비밀번호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은행계좌, 핸드폰, 이메일, 심지어 집 현관문까지 문자를 조합한 비밀번호없이는 열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나라에도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비밀번호는 바로 두글자, **감 사**입니다. 시편100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 지는지, 그리고 왜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 .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4 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은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 감사의 근거 -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3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 . 기쁨으로 찬양하라(1 - 2 절)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참된 열쇠입니다.

4 . 영원한 감사의 이유(5절)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 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5 장1 8 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비밀번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에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 아멘 -